



영	랑	을	다	은	
강	진	의	봄	날	



‘제20회 영랑문학제’ 내달 14~15일 영랑생가 일원서 개최  
영랑시문학상·전국 백일장&시낭송 대회·학술심포지엄 등

올해는 김영랑(1903년 1월 16일) 시인 탄생 12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다. 시인이 남긴 건 활자화 된 시(詩)지만, 시인이 갈망했던 시대 정신은 시인을 기리는 행사를 통해 주목받고 있다. 강진군은 영랑의 숭고한 시대 정신을 기리기 위해 ‘영랑문학제’를 열고 있다. 올해로 스무 해를 맞았다. 올해 문학제는 ‘다시 찾은 영랑의 봄’을 주제로 다음 달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강진 영랑생가 일원에서 개최된다. 모란꽃 피는 봄, 시인의 고향 강진에서 펼쳐질 제20회 영랑문학제의 주요 프로그램을 살펴본다.

◇ 섬세하고 영롱한 서정성의 발로 ‘영랑시문학상’ 영랑은 일제강점기 시절 잃어버린 주권을 되찾기 위해 뜨겁게 항거했던 지식인이자, 우리 한글이 지닌 아름다움의 정수를 가감 없이 보여준 가객이다. 시문학파기념관은 ‘시문학’ 창간일(1930년 3월 5일)에 맞춰 지난 2012년 3월 5일 개관한 이후 현재까지 다양한 문학·예술 사업을 이어오면서 대한민국 문학사를 관통하는 문학 향유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문학’은 김영랑, 박석철, 정지용, 이하운, 정인보, 변영로, 김현구, 신석정, 허보 등 1930년대 순수 서정시 운동을 주도했던 시문학파 9인이 함께 참여한 시집이다. 시문학파기념관은 영랑 김윤식의 시대 정신과 섬

세하고 영롱한 서정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해 ‘영랑시문학상’을 제정, 매년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다. 영랑시문학상은 20년 이상 작품 활동을 한 시인들이 추천받아 심사하고 있다. 오랜 시간 시작(詩作)을 했더라도 등단하지 못한 시인은 애초에 참가 자격이 없을 만큼 여느 시문학상보다 존재감과 무게감이 남다르다. 특히 영랑 서거 70주년이었다면 2020년부터는 동아일보와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더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 시문학파기념관은 영랑 선생의 문학 정신을 창조적으로 구현한 시인을 선정해 상금 3,000만 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 국민 누구나 영랑의 숨결을 노래한다. 전국 영랑 백일장&시낭송 대회 영랑시문학상이 ‘시인’들로 한정된 전문가의 영역이라면 전국 영랑 백일장과 시낭송 대회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축제’ 중 하나다. 제20회 영랑 백일장 대회는 3월 9일부터 31일까지 사전 접수, 또는 4월 14일(오전 9시 50분 마감) 현장 접수로 참여 가능하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되며 주제는 영랑생가 및 시문학파기념관 외부 벽보에 당일 발표된다. 초·중·고등부와 대학·일반부 4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총 시상금 800만 원이 수여된다. 올해로 12회를 맞은 영랑 시낭송 대회는 9일부터 24일까지 사전 접수하며, 4월 3일 시문학파기념관 세미나실에서 예선을 거쳐 4월 15일 오전 10시 강진 아트를 소공연장에서 본선이 치러진다.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일반부 3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예선 참여는 지정 시(김영랑 시) 1편, 자유시 1편을 배경음악 없이 1분 이내로 녹음해 접수 마감일까지 우편이나 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본선에 진출한 참여자는 지정 시 1편, 자유시 1편을 암송

발표하게 된다. 시 낭송 대회에는 시상금 700만 원이 걸려 있다. 백일장과 시 낭송 대회 시상식은 모두 영랑문학제 폐막식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접수 안내는 강진군청 및 시문학파기념관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 시문학파들이 시조를 썼다... 심포지엄서 한국 전통시 재조명 1930년대 시문학파 시인들이 시조를 쓰고 지면으로 발표했다. 사실은 한국 문단에도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다. 제20회 영랑문학제에서는 ‘시문학파 시인들의 시 세계와 한국의 전통시’를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갖는다. 김영랑과 시문학파 시인들의 시 세계를 재조명하고 한국 문학의 지평을 넓혀가기 위해 마련한 이번 심포지엄은 4월 14일 오후 1시 30분부터 시문학파기념관 세미나실에서 진행된다. 심포지엄은 한국시조시인협회 이사를 맡은 유현 시인의 사회로,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 노창수 문학평론가, 김민정 문학박사, 이승희 문학평론가, 우은숙 국어국문학 박사, 주희춘 강진일보 대표 등이 토론을 벌이며, 한국문인협회원 100여 명과 군민 등 총 2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 밖에 영랑문학제에서는 모란을 모토로 한 민화 작품 전시와 함께 지난해 영랑시인학교 졸업생들의 시화전도 감상할 수 있다. 강진원 강진군은 “코로나로 지난 2019년 이후 3년 만에 열리는 문학제인 만큼, 온 힘을 다해 준비했다”면서 “영랑의 작품 세계도 들여다 보고, 기념관 근처에 있는 세계모란공원도 꼭 한번 들여다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영랑의 숭고한 시대 정신을 기리기 위해 열리는 ‘영랑문학제’가 ‘다시 찾은 영랑의 봄’을 주제로 다음 달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강진 영랑생가 일원에서 개최된다. 지난 문학제에서 인사말을 하는 강진원(왼쪽) 강진군수와 시문학파기념관 전경. <강진군 제공>

# 키농야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3년 3월호

2023년 2월 28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 특집 지금은 반려시대

기쁨있는 전통, 활기 넘치는 문화  
가보고 싶은 ‘문불여장성’

향토 요리사이 美路路 美路路 美路路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필암서원’  
천년고찰 백양사 ‘고불매’  
공동체의 정성으로 치러낸 ‘백련동 시골밥상’  
‘첨단 창성로컬푸드직매장’ | 복합문화공간 ‘오퍼먼트’

세계문화유산 한국의 서원 ⑥  
‘예학 대가’ 김장생 3대 배향  
김계희, 김진 부자 함께  
모시는 논산 돈암서원

임의진 시인의 광주 속살 순례기 ‘변두리와 언저리’ ⑤  
우치동물원과 패밀리랜드, 코끼리떼와 어울려  
‘아아아~’ 타잔이 뛰노는 놀이동산

공연 회제  
8년 지속 ACC 브런치콘서트, 기대되는 2023 라인업

당신에게 어떤 반려가 있나요?  
감성 심는 플랜테리어 인기  
새봄맞이, 반려식물과 함께

### 에향 초대석

‘국민 정신건강 주치의’  
이시형  
“항노화 아닌 순노화가 잘 늙는 법”

클릭, 문화현장 신개념 여행자 걸쳐 그라운드  
여행자의 ZIP

해외문화기행 ④  
중세의 왕궁, 박물관 섬  
‘북유럽의 베니스’  
스웨덴 스톡홀름

기획 ‘모두를 위한 미술관’  
공공호텔을 ⑤ 인천광역시  
아트 공항, 아트 호텔  
인천의 얼굴로  
기억되는 예술 작품들

스포츠 이야기  
목표는 하나 “우승”  
KIA타이거즈 2023  
애리조나 스포링캠프

기획 도시가 역사를 기억하는 법 ⑤  
거대한 기억의 공간, 베를린  
지우지 않고 생생하게  
삶 속에 새겨넣은 역사

문화 트렌드  
‘슬램덩크’ 돌풍, 한국팬들도  
현실적 성장 스토리 공감